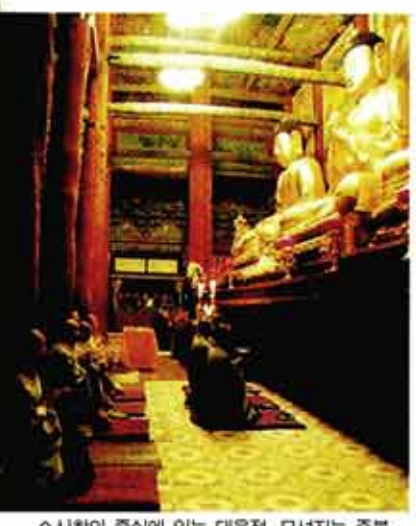


# 불법승 삼보 주처...예배·수행·전법 공간



○사찰의 중심에 있는 대웅전. 모셔지는 주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해인사 장경각은 수나라장·법보전·동서간고 등 4동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수나라장은 넓은 서까래와 긴 처마(차레)를 갖춘 출세마집의 우주건축물로 내부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동풍과 온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 외벽에 돌박이 상감을 두었다.



○불상을 보호하고 장엄하기 위해 불상 머리위에 설치된 달집. 화려한 보궁형태로 장식돼 있다.

##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 집

집은 단순히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의 터' '보호처' '안식처'라는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삶의 근거, 목숨의 뿌리, 안락함의 보루로서 삶의 동지를 의미한다. 불보살의 존상을 봉안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집, 모든 불자의 예배·수행·전법의 중심이 되는 곳이 사찰이다. 사찰의 각 전각은 교리에 의거해 지어졌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사찰 건축은 수미산(須彌山)이라 불리우는 우주구조의 불교적 상징체계를 본따 상단, 중단, 하단 등 3단으로 나뉘어진다. '상단'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무색계 4천의 세계를, 불이문에서 대웅전 경계(불당 및 강당과 선방 포함)에 이르는 '중단'은 색계 18천의 세계를, 요사채를 포함한 하단은 사천왕문을 중심으로 한 옥계 6천의 세계를 각각 상징하고 있다.

### 사

살의 중심을 이루는 불당은 그곳에 주존으로 모신 불보살의 명칭에 따라 대웅전, 아미타전, 대적광전, 관음전 등의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불당은 대승불교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불당이 가람의 중심적인 건축물이 되고 더불어 승인과 탑이 조성되면서 사원 건축의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집(우주)의 중심은 기둥과 대들보로 지탱된다. 대들보가 빠지면 서까래를 걸칠 수 없다. 대들보는 지붕을 상징한다. 불교에서는 대포교사를 대들보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집에 문채가 붙듯 불보살이 거처하시는 각 전각에도 현관이 붙는다. 그 현관은 어떤 불보살이 상주하시는지 알려준다.

###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도 하며 항상 사찰의 중심에 위치한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두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는 주불로 석가모니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며, 각 여래상 좌우에는 제각기 협시보살을 봉안하기도 한다. 또한 삼세불과 삼신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삼세불로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미래)과 갈라보살(과거)이 협시하게 되며, 다시 그 좌우에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과 아난의 상을 모시기도 한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보살(報身) 화신(化身)으로 구별하며, 일반적으로 법신은 비로자나불, 보살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화신은 석가모니불을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웅전에 봉안하고 있는 삼신불은 선종의 삼신불을 따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것인 점에 차이가 있다. 대웅전의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불단을 수미단(須彌壇)이라고 하

### ■장경판전(대장전)

장경이나 그것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으로 사찰에 따라 대장전 혹은 관전, 법보전 등으로 불리운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국보 52호)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

###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화엄전, 비로전, 대광명전으로도 불리며 진리 그 자체로서 우주의 본체인 진여 실상 등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보살 보살 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이같은 삼신불사상은 부처님의 위대한 인격을 그 본질 및 현상, 기능의 세 측면에서 각기 나누어 본 것으로, 법신 보



○불교교리에 의거해 지어진 사찰 전각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 지형과 신세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 전경.

신 화신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원융무애한 관계이다. 대적광전에는 후불탱화 역시 삼신불탱화를 모신다.

## 주존불 명칭따라 불당 이름도 다양 불교적 우주관 상징 3단계 배치

### ■극락보전(아미타전)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부처님과 그 협시보살들을 모신 법당이 다. 미타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수광전이라고도 한다. 일부 사찰의 경우 극락전이 사찰의 주된 전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에 해당된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부처님과 그분의 협시보살로서 관세음보



○금동삼존불상(국보 제73호). 높이 18cm, 고려초기 작. 간송미술관 소장.



○해남 대흥사 법의 길상무늬.

살과 대세지보살, 혹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진다.

### ■관음전·나한전

원통전으로도 불리는 관음전은 항상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관할해 온갖 고통에서 구제해 주는 대지대비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협시로서 남존 동지 해상유왕 등의 존상을 모시며, 그 뒤에 선관음도 백의관음도 천수관음도 11면관음도 수월관음도 혹은 아미타후불탱화를 봉안하고 있다. 나한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여 좌우에 석가모니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를 봉안한다. 보통 5백인의 아라한을 오신 오백나한전과 16대 아라한상을 모신 육진전으로 대별된다.

### ■삼성각

철성과 독성(나반존자) 및 산신을 모셔놓은 전각, 세 분을 한 곳에 모셨을 때는 삼성각이라고 하고 나누어 모셨을 때는 각각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라고 이름한다. 삼성각은 불교에 우리 나라 고유의 토속신앙이 융화돼 나타난 형태다.

### ■달집·불감(佛龕)

달집은 부처님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불상의 머리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천개 또는 보개'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계신 수미단의 상부를 장엄하는 것이므로 화려한 보궁의 형태로 장식되며, 내완궁, 직별보궁 등의 현관이 붙는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조그마한 집을 말한다. 좌우에 여닫는 문이 있으며 그 문을 닫으면 원통형의 함이 되는데 주자라고도 한다. 스님들이 만행할 때 모시고 다니며 예경하기도 하였으며 스님들의 개인적인 원불로 모셔지기도 하였다. 이동식 불전인 셈이다.

### ■요사채·해우소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불사를 관리하고 강당, 선당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해 주는 생활공간이며 휴식처다. 대중 요사에는 큰 방(대중방이라고 함)을 비롯, 대소의 스님방과 공양주 및 불국방, 부엌, 헛간, 곳간 등이 들어 서고 펼쳐진 객실과 반딧간(취사전 용부엌) 또는 한뼉부뚜막 및 식당, 고루, 수각 등이 어우러져 한 뉘음을 이루기도 한다. 이 요사들은 다른 건물들의 뒤편에 있으므로 후원(後院)이라고도 한다. 해우소(解憂所)는 뒷간을 일컫는 말로 자연으로부터 나온 음식물을 먹고 배설된 인분을 자연스레 대지에 되돌리는 자연순환의 연결고리를 고려해 지어진 건물이다.

문경 김용사, 순천 선암사, 휴천 수타사, 삼척 영은사, 오대사 종대 사자암, 영월 보덕암의 해우소는 으뜸 보기 드문 사찰 해우소의 원형을 지녔다. 도불선 기자(psdo@buddhapia.com)

국내 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71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관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관

■ 구입 및 대리점 문의 바랍니다 ■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광주·전라남북/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현상공덕향은 외향(外香)이 천후(天候)로 금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정화 후 약 30분이 지나면 외향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향과 걸모습을 중시하지 않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및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당향의 천연향재로 저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의장 19350  
등록 28434  
특허 48510